

사진 : 정봉채 라이문도(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제 1 독서 열왕기 상권 17,10~16

화 답 송 시편 146(145), 6ㄷ~7.8~9ㄱ.9ㄴㄷ~10ㄱㄴ (◎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1.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2.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3.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히브리서 9,24~28

복음 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마르코 12,3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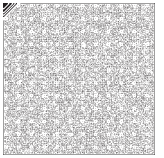
영성체송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사이판 주민과 신자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도움 당부

지난달 사이판에 강타한 태풍(10월 25일, '위투')으로 그곳 주민과 신자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움 주기를 원하는 본당, 기관 또는 신자분들이 계시면 교구 관리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하고 싶다



산길을 걷다 보면 문득 피어있는 자그마한 꽃들을 보며, 그 숨막히게 있는 힘껏 피워내는 아름다움을 통해 생명이 자신을 봉헌하며 그분을 찬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사람의 눈이 닿지 않음에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소박함에도 자신의 존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그 작은 꽃 앞에서 절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린 봉헌은 과부의 봉헌과 닮아 있었습니다.

살아가다 문득 만나게 되는 자신만의 두려움과 약함들, 상처로 인해서 많은 경우 온전히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또는 소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니게, 한순간 바스러질 것만 같은 삶을 위태롭게 견뎌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더한다 해서 충만하거나,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기

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그 안에서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시간도 아니고, 내가 아닌 것들을 그저 채워놓은 시간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길에 두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하는 전부(全部), 혹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 전무(全無). 이 이외의 길은 없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는데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박한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욕심, 판단,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온전히 하느님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비워지지 않은 곳에 들어갈 자리란 없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득한 이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 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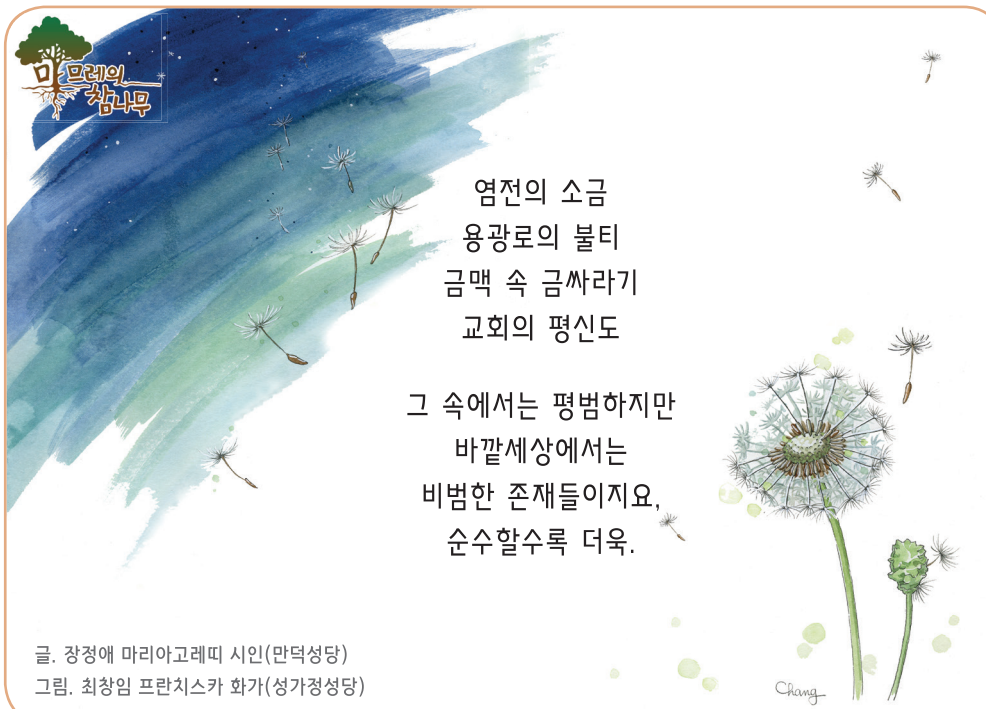
성모님과 같이 오늘 복음에서 한 여인의 봉헌은 무모하고, 세상의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는 지극히 작은 이들이 그분 때문에 죽어도 좋으며 자신을 내어던지고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께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인해 자유와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으로 행복한 이들,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름이길 청해봅니다.



김인한
알베르토 신부
우리농살리기 담당



엄전의 소금
용광로의 불티
금맥 속 금싸라기
교회의 평신도

그 속에서는 평범하지만
바깥세상에서는
비범한 존재들이지요,
순수할수록 더욱.

글. 장정에 마리아고레피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1.12(월)~13(화)
김인한 신부(우리농살리기 담당)
11.14(수)~17(토)
김영웅 신부(성지성당 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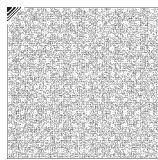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우지민 유스티나

11.14(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찬양사도 생활성가 토크콘서트(senda)
출연: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11.14(수) 본당 리포터
출연: 이영애 아숨타(민락성당)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1.16(금) 12:15~14:00
진행: 이재석 신부

우리 찬양사도 출연: 익투스 (제18회 cpbc 창작생활성가제 우승상)



매주 사상성당에서 거행되는 외국인 미사에는 500여 명에 가까운 외국인 신자들이 참석합니다. 그 중 필리핀, 베트남 신자들은 공동체를 구성하여, 전례 준비에서부터, 봉헌금 관리, 미사 후 성전 청소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부산교구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미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봉사는 교구 신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짐에 따라, 그들도 점차 각자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주민 평신도 사목협의회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각 지역별 축제와 성지순례, 각종 행사 및 교육까지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민 평신도들은 주체적이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노동사목에서 활

동하면서 이러한 이주민 평신도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는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바를 담당 신부인 제가 다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신앙생활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목소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는 '성직자 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평신도 희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신도 중심주의'는 아직까지 먼 이야기인 것만 같다는 느낌은 저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만나는 이주민 평신도 공동체가 신앙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가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주민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쉬는 날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유일하게 쉬는 날,

그날 하루 동안 자기 동포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생활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이 곧 사회적 활동이며, 문화생활이고, 취미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생활 외에도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우리가 하는 여러 사회적 활동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신앙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몇 순위일까요? 오늘 평신도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차광준 님의 신부

이주노동사목 free6403@hanmail.net

한처음 교구가 시작될 때

성모성년과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인 1954년에 성모성년을 선포하고, 전 세계가 경축하도록 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25주년에 해당되는 1988년도를 성모성년으로 재설정하고, 1987년 성모성월부터 성모성년 경축행사를 하도록 했다. 묵주의 기도 성모를 수호자로 모신 교구에서도 1987년 5월 24일 성모성년을 선포하고 경축순례 성당으로 중앙성당과 범일성당을 지정하였다. 1988년 8월 11일 폐막미사를 봉헌할 때까지 각 본당에서 성모공경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회개와 속죄의 기도와 묵주의 기도가 바쳐졌다.

이와 더불어 1986년 3월 14일, 1989년 제44차 세계 성체대회의 서울 개최를 교황청과 한국 주교단이 동시에 발표하였다. '그리스도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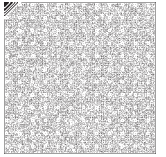
의 평화'라는 주제로 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활실천 운동으로 '한마음 한몸 운동'

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3대 실천 운동으로 생명의 나눔, 재물의 나눔, 보금자리의 나눔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교구에서도 헌안 헌혈 운동은 메리놀병원에서, 헌미 헌금 운동은 사회사목국 주관으로 실시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 성체대회 준비의 중간 점검을 위해 1988년 10월 16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한국 성체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교구의 각 본당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였다.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는 10월 4일에서 8일까지 평화와 감사, 회심과 일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가득 담아 성대하게 개최됐다. 마지막 날 8일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직접 주례하는 장엄미사가 여의도 광장에서 성대하게 봉헌됐다. 세계 성체대회와 교황의 두 번째 방문은 한국 천주교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마음 한몸 운동'의 나눔 실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한건 신부(순교성지사목) jubo@catb.kr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빛이 참 고운 계절. '한마음한몸' 사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전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우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정성으로 조금씩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웃들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석 씨의 꿈'

지난 1월 지적장애라는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 살아아가고자 했던 청년 민석 씨의 사연을 소개하였습니다. 유난히 차갑던 겨울, 유일한 가족이었던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민석 씨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임대주택을 얻어 생활하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민석 씨를 응원해 주신 많은 교우님들의 정성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며 생애 처음 꿈을 이루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민석 씨는 일상을 보내는 행복이 참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민석 씨에게는 삶의 큰 힘이 됩니다. 민석 씨의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꽃이 되어 주님의 곁으로'

약한 힘이지만 더 힘을 내보려 했던 6월 사연에 스텔 양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에스텔 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삶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모든 암들이 온몸에 전이되었지만, 곳곳이 항암치료를 받으며 취업까지 한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이후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호스피스 병동에서마저 치료가 어려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정성에 감사하며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은 에스텔 양의 치료비와 장례비로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에스텔 양의 어머니는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시 힘을 내보려 하지만, 베타테병과 섬유근육통으로 또 다시 버티기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꽃이 되어 내려앉은 에스텔 양을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전한 가족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신협 131-016-582122 / 부산 101-2017-02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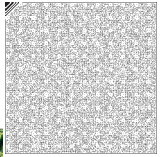
최근 들어 자신들이 하느님인 양 죽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교 교주가 가르치는 비밀 교리를 깨달아 생명의 책, 곧 자기 교회 명부에 기록되면 지상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묵시록이 말하는 십사만사천 명을 영생을 누릴 사람들의 실제 수라고 생각하며, 그때와 시간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주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교주의 가르침은 절대적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여 종말이 오기 전에 죽는 이는 영원한 생명의 책에서 제외되리라 생각합니다. 죽음을 죄의 결과라 보기 때문에, 죽는 이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 예수님

처럼 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는 이들이 진정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죽음은 영생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 곧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산 이들은 죽은 이들과 함께 들어 올려 지리라 믿습니다.(1테살 4.1~12) 하지만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때를 안다고 말하거나, 내가 그리스도다, 하느님이다 외치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2테살 2.1~12) 교회가 전하는 “건전한 가르침”(2티모 4.3)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권고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 하느님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지난 11월 2일(금) '위령의 날'을 맞아, 우리 교구는 양산 천주교 공원묘지(하늘공원)에서 신자 3,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위령의 날 미사를 봉헌하였다. 손삼석 주교는 강론을 통해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위해 기도하는 날이며,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주님께 순명하고 감사하면서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경주 공원묘원(울산대리구장 권지호 신부 주례), 용호동 천주교 묘지(용호성당 주임 임영민 신부 주례)에서도 미사가 봉헌되었다.

한편, 망미성당 누룩회(주임 : 석판홍 신부, 회장 : 성준경 바오로), 석포성당 아가페회 (주임 : 김종남 신부, 회장 : 진효경 요셉) 회원들은 위령성월을 맞아, 지난 10월 28일(일) 용호동 천주교묘지의 무연고 묘지를 찾아 별초 봉사활동을 각각 실시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11월 4일(일) 김범우순교자성지 / 주임 : 김성남 신부, 회장 : 전태일 프란치스코



10월 27일(토)~28일(일) 본당 주임 : 손태성 신부, 회장 : 김동만 안드레아



10월 28일(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주임 : 임석수 신부, 회장 : 정성탁 미카엘



11월 4일(일) 모산초등학교 주임 : 김인환 신부, 회장 : 정경자 올리안나



10월 24일(수) 주임 : 김태환 신부, 단장 : 김경애 루치아



11월 2일(금)~3일(토) 광안동 은혜의 집
내용 : 손삼석 주교 특강, 상임위원회 I, II (각 교구별 2019년 활동 방향 지표 및 중점사업 토의, 2019년 한국평협 활동 방향 토의)
부산교구 평협 주관(지도 : 손삼석 주교, 회장 : 도용희 토마스아퀴나스)



10월 29일(월)~11월 4일(일)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지도 : 김현일 신부, 회장 : 정창환 안토니오

에신 일모임 (중강)

· 11.11(일) 13:30 · 신학대학
문의 : 629-8760(성소국)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피정(부산, 울산)

· 12.7(금) 10:00~16:30 · 교구청 5층 강당
회비 : 1만원(입금 : 부산 041-01-027178-1 천
주교부산교구) / 준비물 : 목주, 미사도구
신청 : 11.30(금)까지 /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이
문의 : 629-8760(성소국)

본 당

가야성당 11월 성령치유대피정

· 11.13(화) 12:30~17:00 · 가야성당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 7번 출구)
강사 : 문봉한 신부(대구대교구), 이병주 신부(미사,
안수, 교해성사) / 문의 : 010-6679-5345

수정마을성당 추계 은혜의 밤

· 11.19(월) 19:00 찬미, 19:50 미사 및 가르침, 안수
주제 :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 하늘에서와 같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강사 : 이성진 신부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
문의 : 337-9445

거제동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구함

제출서류 : 교적사본 / 접수 : 11.30(금)까지
문의 : 853-0133

망미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 PC(엑셀, 워드) 활용가능자, 1종운전면허 소지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제출 : 11.28(일)까지) / 문의 : 755-4501

반송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교적사본, 운전면
허증사본, 본당신부추천서 / 문의 : 542-1530

기관·제 단체·위원회

Arca 청년성서모임 폐제 미사

울산 : 11.12(월)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부산 : 11.14(수) 20:00 초량성서교육원
주례 : 권순도 신부(부산), 이주홍 신부(울산)

Arca 성경 공부 그룹원 수시 모집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부산 : 11.12(월) 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
울산 : 11.26(월) 19:30 아음성당
주제 :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문의 : 465-9508(무로강의와 미사) / 누구나

꾸르실로 참가 신청 접수 및 마감

제414차(자매) : 11.22(목)~25(일) / 마감 : 11.16(금)
문의 : (055)388-5734, 388-5733(팩스), 본당 간사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 11.13(화)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울산 : 11.24(토) 10:00 옥동성당
문의 : 441-7729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11.15(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제 : 복자 이정식 요한과 복자 양재현 마르티노
문의 : 515-0030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11.17(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 462-1784

음악교육원 그레고리오성가 클래스수업

개강 : 11.7(수), 매주 수요일(10주 과정)
· 부산가톨릭 음악교육원 / 지도 : 최유정
문의 : 517-8241~2, 010-3923-1692

빈민사목 후원미사

· 11.12(월) 10:30 · 문헌성당
주례 : 윤희동 신부 / 문의 : 467-1045

오순절평화의마음 후원회 미사

부산 : 11.12(월) 11:00 남천성당
문의 : 782-0765

Senda 찬양스토리 <주님께 가는 길>

· 11.17(토) 15:00 · 서면성당 센다
주제 : 그 날과 그 시간 / 참가비 : 1만원
출연 : 계만석, 남석균, 박소정, 송동진, 게스트
하늘씨앗 / 문의 : 010-9861-9064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
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i1981@daum.net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6층 (14평, 15평, 20평, 30평, 51평)

박효련 마리아 사진전 <Veil on Film>

· 11.12(월)~20(화) · 마음발걸러리
(수동필름카메라로 촬영한 아날로그 사진전)

일일영화화정 <그린 마일>

· 11.21(수) 13:20 · 가톨릭센터 소극장
(감동과 재미가 있는 가톨릭센터 적극추천작!)
진행 : 무료 영화감상과 나눔의 시간

사진교실 수강생 모집

강사 : 최경현 (사진작가) / 수강료 : 20만원
초급반 개강 : 11.20(화) 19:00 (매주 화, 15회 과정)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음이 기도회
· 11.12(월) 19:30 전포성당
· 11.14(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목주기도
· 11.12(월) 11:00~16:00 / 중식제공, 도우와 안수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54일(9일)기도
· 11.14(수) 11:00~16:00 (버스 운행합니다)
강사 : 문봉한 신부(대구대교구)
· 금요철야기도회
· 11.16(금) 23:00~17(토) 04:00
강사 : 손광배 신부(인천교구)
· 450차 교구묵상회(일반)
· 11.16(금) 19:30~18(일) 17:30
회비 : 10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지하도 입구
· 29기 심화2단계 4차(수료식)
· 11.25(일) 10:00~16:30
회비 : 1만원 / 준비물 : 성경, 미사도구, 필기구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및 연합빨기도

· 11.13(화) 13:00 연합빨기도, 14:00 미사
· 복산성당 / 문의 : 010-2428-5785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1.20(화) 14:00 · 가야성당
성모님께 봉헌식과 성체강복 및 안수
지도 : 윤명기 신부 / 문의 : 010-8879-2376

울산가톨릭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Antonio Salieri - Missa in D (Emperor)
· 11.17(토) 19:30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도 : 이강우 신부 / 지휘 : 조현수, 피아노 : 손
혜정, 김효성 / 문의 : 010-3919-4973(총무)

성서주간 말씀잔치

[부산] 11.26(월) 09:40~16:30 / 19:00~22:00
(10:00 미사 주례 : 손삼석 주교)
· 주교좌 남천성당 / 참가비 : 초대(초대권 지참-
강의록 교환, 점심도시락 각자 지참)
주제 : "성경, 이야기로 읽기"
강사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
문의 : 465-8162, 467-0761(성서교육원)
[울산] 11.26(월) 09:30~15:30 복산성당
(14:45 미사 주례 : 권지호 신부)
· 복산성당 / 참가비 : 초대(점심도시락 각자 지참)
주제 : "인간이 무엇인가에..." (시편 8편)
강사 :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학장)
문의 : 010-2082-0627(울산성서)

혼인미사 예식 및 예약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문의 및 예약 : 051.441.3500 (수~일)
* 2018년 성전봉헌기념 특가 예약 중 *
1989-2018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p>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p> <p>서울공예사</p> <p>법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형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p>	<p>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패물 등 각종 성구 제작</p> <p>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p>(주)발해투어</p> <p>1. 나가사키 성지순례 (카멜 3박 4일) 479,000원, 20명 이상 출발 2. 대마도 매일 출발 (119,000원부터) 3. 일본 온천(히라도) 카멜 3일 199,000원~</p> <p>항 프란치스코 253-5887</p>	<p>물 세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p> <p>삼일누수탐지공사</p> <p>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p> <p>202-3011 이 국 영 (베드로)</p>	<p>포장이사 전문업체</p> <p>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p> <p>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p> <p>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각종차량 자동차의 모든 것 매매, 위탁, 수출, 등록, 알선, 폐차, 말소</p> <p>OS자동차매매상사</p> <p>상당전화 010-3599-6420 자동차매매부산 권허 제20호, 현 중상(야세)</p>	<p>(주)하나여행클럽</p> <p>해외성지순례 전문 국내성지순례 상시출발!!</p> <p>김 승 범 (안드레아)</p> <p>010-6321-3999</p>	<p>법무법인 올강</p> <p>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p> <p>대표번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p> <p>717-2570, 010-7455-1031</p>	<p>거제 주 단</p> <p>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테레사)</p> <p>632-0696 010-9331-6633</p> <p>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p>	<p>사회복지 법 인</p> <p>성요셉의 집</p> <p>입 소 상 담 (055) 365-1910</p> <p>장기요양등급 1~5등급 (1인실~4인실 선택가능) www.st-joseph.co.kr</p>

빈민사목 반송 빛들레 나눔가게

내용 : 의류, 신발, 가방(새 그릇 택배 및 직배가능)
문의 : 542-0242, 467-1045, 010-2886-6467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모집·기타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 11.12(월) 10:3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4142-5101

사랑의성모수녀회 후원가족미사

· 11.12(월) 14:00 · 수녀원
문의 : 756-3266, 010-5648-3266

예수고난회 일일피정

· 11.12(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당
주제 : 몸기도 / 강의 : 오재성 신부
문의 : (02)924-8627, 010-9309-1388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1.12(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11.13(화) 10:00 · 이기대성당
· 11.14(수) 10:00 · 월평성당
· 11.16(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회 무료 월례특강 및 미사

· 11.16(금) 14:00~17:00 · 성분도 은혜의 집
주제 : 쉬기날기, 쉬은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
강사 : 이재상 신부 / 문의 : 010-9344-3843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명현강학회

김범우순교자성지, 명례성지 순례
· 11.17(토) 08:30 · 교대 앞에서 승차(당일코스)
비회원 대환영 / 문의 : 010-4150-6930(담당수녀)

제32회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마리아수녀회 자선대바자회
· 11.17(토) 09:00~19:00, 18(일) 09:00~18:00
· 마리아수녀회 내 알로이시오가족센터
문의 : 250-5406~10

사랑의씨튼수녀회 <말씀과함께> 기도모임

· 11.18(일) 14:00 · 동아대 부민캠퍼스 근처
대상 : 19세~35세 미혼 여성
문의 : 010-7152-8004

중구노인복지관분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 : 평일 10:00~13:00 분관 4층 경로식당
내용 : 경로식당 배식 및 뒷정리(점심식사 및 봉사시간 제공) / 대상 : 연령 및 성별 무관
문의 : 462-0316~7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멕시코/과달루페, 쿠바 설명회>
· 11.13(화) 15:00 · 가톨릭센터
문의 : 010-3837-6434, 247-5858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 11.14(월) 09:30 마리아피정센터
대상 : 봉헌생활을 원하는 58세 이하 신자
준비물 : 교적,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문의 : 010-4622-4819(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한티순교성지 피정

· 11.24(토) 16:00~25(일) 13:00
주제 : 영적충만(영성피정)
강사 : 배형진 신부(말씀의선교수도회)
문의 : (054)975-5151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성경통독피정

· 12.1(토)~9(일) / 회비 : 48만원
문의 : 010-3340-0201, 010-4993-4394

제39차 효소단식, 침묵, 복음서 통독피정

· 12.27(목) 14:00~31(일) 13:00
· 정하상교육회관 / 회비 : 38만원
문의 : (044)863-5690~2, 010-8848-5690

가톨릭사지대학교 신입생 수시2차 모집

원서접수 : 11.6(화)~20(화)
문의 : (054)851-3021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1.17(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11.18(일) 13:30	본원	010-2835-4858
한국성모의자매수녀회	11.18(일) 14:00	칠곡 본원	010-8388-6219
사랑의성모수녀회	수시상담	부산본원 및 원하는 장소	010-9585-707
작은예수수녀회	전화상담	전화상담	010-8939-7970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접수 : 11/7(수)~20(화) [외국인전형]
[일반전형] 인터넷원서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문의 : 510-0742, 5 graduate.cup.ac.kr kwak@cup.ac.kr
입학처 : 051-510-0701~4 / www.ipsi.cup.ac.kr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신장이식 수술 700례 달성

- * 조직형 및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성공
- * 환자 생존율·이식신 생존율 국내 최고 성적
- * 부산 최대규모 인공신장실 (최신 혈액투석기 7기개 보유)

문의 : 461-2393(메리놀병원 신장내과)

가톨릭선업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무료영화상영> "가톨릭선업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세기 11.19(월) 19:00 가톨릭센터 소극장
내용 : 바티칸이 추천하는 더 바이블 시리즈 중 창세기편
진행 : 18시 후원 감사 미사(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쿠니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p>
<p>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양운재가노인복지센터 702-2226 정창영(안토니오) 010-2567-2956 해운대구 양운로 115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p>	<p>동래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베스)</p>	<p>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종환(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p>	<p>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더고운 피부과 의원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세원(마태오) 558-7575 은전창영 동래출몰러스(튀턴) 우성빌딩 3층</p>